

얼마전 남조선에서 윤석열대당이 《6.25전쟁기념식》을 이전시기보다 더 크게 벌려놓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등 안보분위기를 고취하였다.

한편 미국과 야합한 《한미연합초계비행》이라는것도 벌이고 행안안전부것들은 전날 단독으로 민간반향공대포비사훈련이라는 북단소동을 피워댔다.

남조선사회에 《안보불안》을 고취하려는 패배자들의 불순한 책동이 공화국과의 전쟁대결기도를 다시 급 드려낸 또 한차례의 어리석은 대결정책이 아닐수 없다.

간혹할수 없는것은 윤석열이 그 무슨 립장문제라는데서 《힘에 의한 평화》를 운운하고 아래것들도 입을 모아 그 누구의 《위협》, 《도발》을 떠들어댄것이다.

남조선에 나도는 《안보불안》의 친원지는 《북진제타격》, 《단호한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하는 가증스러운 망동

대응》을 고아대는 윤석열패당이다. 다름아닌 그들이 상진의 세계적 패전락실현을 위한 하수인, 돌격대임을 자처해나서고 그 누구의 《위협》, 《도발》을 구실삼아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확대강화하고있으며 미전락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구걸하고있지 않는가.

지금의 남조선정세는 조선전쟁이 일어났던 70여년전과 너무도 흡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쟁공포증까지 느끼고있는 실정이다.

이런 속에서 벌어진 반공화국대결 망동들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전쟁도발자, 침략자인 미국에 추종한 자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려우고

수치스러운 패전상을 《승리》로 미화하자니, 공화국의 《위협》이 현실적이고 《도발》은 불가피하다는 불신과 적대적의 남조선사회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것이다.

나아가 공화국에 대한 《주적관》, 대결의식을 더욱 고취하여 자들의 전쟁도발행동과 외세의 야합을 합리화, 정당화하자니 전폭적일것이다.

한마디로 윤석열패당은 제2의 6.25를 피하고있다.

70여년전과 력학적정세가 완전히 다르다는것을 깨닫지 못하고있는데 윤석열패당의 어리석음이 있다.

세인이 《백무기와 보병총파의 대결》이었다고 평했던 1950년대에도 패배를 시인하였고 오늘날까지 공화국과의 대결에서 단 한번도 이적본적 없었으며 쇠퇴와 조락의 비탈길로 굴러떨어지고있는 미국이다.

그런 미국을 믿고 세계적 군사강국의 전열에 서있는 공화국을 어찌보겠다는것이야말로 정신병자의 광기이고 활화산에 뛰어드는 부나비격이 아니겠는가.

전쟁도발자들은 제가 지른 불에 타죽기마련이라는것을 1950년대 조선전쟁은 여실히 실증해주었다.

그 어떤 적대세력이라도 공화국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의지를 시험해보려 든다면 그보다 어리석은것은 없다.

윤석열패당은 전쟁대결의 선택이 비참한 종말로 끝나게 된다것을 명심하고 부질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정 필

조진반도의 남쪽에 산재되어 있다.

제가 낳은 자식을 시끄럽다 고 때려죽이고 각을 떠 버리

남조선에서 《국민의힘》 것들이 그 무슨 《북진전제단》을 설립한다고 아무제기를 치고있다.

얼마전 《국회》에서 진행된 《북진전제단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북진전문제》는 《북을 최초로 압박할수 있는 수단》, 《외교무대에서의 중요한 무기》, 《국제적연대》 등의 가을 배꾸기같은 망발들이 터져 나왔다.

참다운 인민의 세상인 공화국의 밝은 영상에 흠뻑을 해보려는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고 적대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인민대중계열주의로 상징되는 공화국의 인권에 대해 말한다면 올해 평양의 송화경리와 황해남도도 진감하였고 머지않아 부방의 량포지구에 슬러퍼지게 될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이면 흥분할것이다.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방역대진에서도 인민의 생명,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온 나라 인민이 친형제자 되어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는가.

사랑과 정으로 화목하고 단결된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해 적대세력들이 수십년동안 군사적공세와 함께 《북진전문제》를 여론화해왔지만 가공되고 날조된 자료들의 허황성과 악랄성에 세인도 침을 뱉으며 조선을 다시 알기 위해 노력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오호려 참담한 인권문제는 자고 깨면 산업예전, 봉락

조진반도의 남쪽에 산재되어 있다.

제가 낳은 자식을 시끄럽다 고 때려죽이고 각을 떠 버리

사고, 자살 등이 꼬리를 물어도 정객들은 권력정찰에만 현안이 되고 1%의 있는자, 가진자만 살수 있고 절대수 사람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다 생의 마감까지 비참한 인권의 무덤이다.

남조선보수패당에게 물린대 공화국에서 테러와 파업에 대해, 설립자와 거지에 대해 제논으로 본적이 있는가.

《자유》와 《민주》라는 사랑받지 못한 광고어래에서 수백수천만인민이 자주적인 인권의 존엄을 빼앗기고 굴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는 남조선과 같은 그런 인간생존이유에 대해 공화국인민들은 이미 침을 뱉은지 오래다.

락인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인민에게 《인권》타령을 해대는것은 까마귀의 백로 흥보기라고 해야 할것이다.

부인한건대 황금만능, 약육강식, 패륜패덕의 미국식 가치관으로 제는 《인권》이 아니라 인민대중계열주의,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곧 조선식인권이여 날로 높아가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공화국의 국악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그 누구의 《삶의 정계선》에 대해 운운하기 전에, 그 무슨 《인권문제》를 론하기 전에 패륜과 방랑, 인간장오와 황금만능, 약육강식으로 색어문드러져가는 제 집안꼴이나 날아보게것이 좋을것이다.

다시 상기시키건대 공화국인민의 인권은 곧 강위력한 국권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북진전제단》에서 올리는

《군사적대응태세》가 초래할것은 ...

최근 미국과 윤석열대당이 공화국의 핵무력강화조치가 립박하였다고 하면서 그 무슨 《단기, 장기대북군사대비태세조정》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다고 한다.

알려진데 의하면 《단기대북군사대응태세》에는 《한

미확장역제전략협의체》의 제가동과 미국의 핵전략자산의 조선반도침투, 《한》미합동군사연습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단독, 량자, 다국적군사훈련의 실시 등 북의 미차일시행발사와 같은 《도발》을 억제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될것이며 《장기대북군사대응태세》에는 공화국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대비태세들과 남조선미국일본사이의 3자군사협력강화 등이 포함될것이라고 한다.

날로 강화되고있는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겁을 먹은 자들의 단말자적발악이 아닐수 없다.

오늘 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야합한 윤석열패당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에 대응하여 자기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양성강화시키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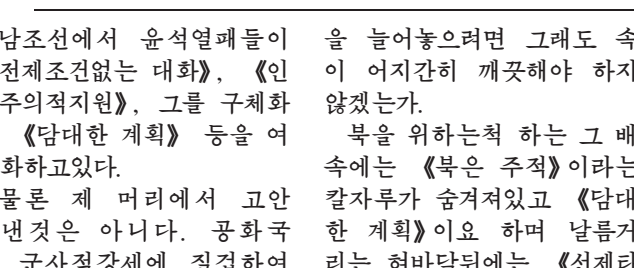
이에 걸맞은 미국과 윤석열패당이 《단기, 장기대북

군사대비태세조정》따위로 높아가는 안보불안위기를 잠재우는 한편 자들의 북침전쟁 목적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윤석열패당의 《단기, 장기대북군사대비태세조정》이란 본질이 있어 뒤집어놓은 《단기, 장기북침전쟁계획》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공화국의 군사적조치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전개되는 방대한 무력과 핵전략자산들이 임의의 순간에 공화국을 《신적타격》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미국과 윤석열패당의 북침전쟁책동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



남조선에서 윤석열패들이 《전제조건없는 대화》, 《인도주의적지침》, 그를 구체화한 《담담한 계획》 등을 여론화하고있다.

물론 제 머리에 서고안해낸것은 아니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걸걸하여 미국이 떠들고있는 소리를 영부세처럼 되받아외운것이다.

상진이 아! 하면 자기도 아! 하고 워싱턴에 비가 오면 자기도 덩달아 우산을 쓰는것이 남조선의 고질적인 외세굴종풍습이고 더구나 친미굴종이 체질화된 윤석열패당의 특기가 아닌가.

그러나 제임으로 《전제조건없는 대화》, 《지침》타령

을 늘어놓으려면 그대도 속이 어지간히 깨끗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을 위하는척 하는 그 배속에는 《북은 주적》이라는 칼자루가 숨겨져있고 《담담한 계획》이요 하며 날름거리는 허바닥뒤에는 《용제타격》의 독침이 깔려있음을 파연 그 누가 모르겠는가.

지금도 윤석열패당은 외세의 북침전쟁머술꾼이 되어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끌어들이고, 3축타격체계를 구축한다 하며 공화국을 겨냥한 북침전쟁소동에 여념이 없다.

남조선의 력대 보수 《정권》치고 동족대결을 안한 《정권》이 없었지만 지금의 보수정권세력은 대결의 도수와 규모 등에서 선입자들을 훨씬 꺾어버리고있다.

북남관계를 완전 날려보내려고 《대통령》입기가 시작

부침전쟁책동에 혈안이 된 자들의 범죄적인 정체를 가려주기 위한 한갖 사탕발림의 너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며 적대세력의 준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것이 공화국의 군신의 지지고 변함없는 자세이다.

윤석열패들이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집착하여 미국의 군사적압박과 경제적봉쇄책동에 적극적으로 추종할수록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공화국의 군사적강세는 더욱 강화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미국산 앵무새의 《대화》 라령

남조선에서 윤석열패들이 《전제조건없는 대화》, 《인도주의적지침》, 그를 구체화한 《담담한 계획》 등을 여론화하고있다.

물론 제 머리에 서고안해낸것은 아니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걸걸하여 미국이 떠들고있는 소리를 영부세처럼 되받아외운것이다.

상진이 아! 하면 자기도 아! 하고 워싱턴에 비가 오면 자기도 덩달아 우산을 쓰는것이 남조선의 고질적인 외세굴종풍습이고 더구나 친미굴종이 체질화된 윤석열패당의 특기가 아닌가.

그러나 제임으로 《전제조건없는 대화》, 《지침》타령

의 독침이 깔려있음을 파연 그 누가 모르겠는가.

지금도 윤석열패당은 외세의 북침전쟁머술꾼이 되어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끌어들이고, 3축타격체계를 구축한다 하며 공화국을 겨냥한 북침전쟁소동에 여념이 없다.

미국산 앵무새의 《대화》 라령

간특한 일본에 구걸질을 해보아야 ...

최근 윤석열패당의 대일적 자세가 남조선의 각계층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집권하자마자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에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한다. 외교부 장관을 보낸다 어쩐다 하다가 오만하게 높아대는 섬나라들에서 수모만 당한 윤석열패당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속심을 알지도 못하고 관계개선을 막무가내로 서두르다 본전도 못찾았다》고 개탄하

였겠는가.

잡초도 개가 있다 하는데 이 썩어진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침을 뱉고 단호한 립장을 보이는데 정상이것이다.

하지만 윤석열패당은 미국 하인 《한일정권협정》과 《위안부합의》 등을 판계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정상회담》을 구걸하고 조선인간계정공회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일본대선 저들이 하겠다고 하는 등 매우 비굴하게 놀아대고있다.

역겨운 친일매국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본으로 말하면 근 반세기에 걸치는 식민지통치기간 강제헌행, 랍치, 살인만행행 무수히 감행하여 수많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류형, 희생, 고통을 해쳐온 저들종족들의 매국노적기질을 고스란히 넘겨받은 추악한 역적배들이며 그들의 품수에는 오직 외세에 의거하여 동족을 어찌할대리은 흥심밖에 없다는것을 독특히 각인시켜주고있다.

민족언어를 기생하는 매국노는 겨레에게 재난밖에 가져다주지 않는것이 없다.

일본의 친인공노할 과거범죄에 대한 사회와 배상을 받아내지는 못할망정 범죄자들 대신 피해자배상금을 지불해 주면서까지 관계개선을 구걸하는 윤석열패당이야말로 남조선과 우리 민족에게 재앙만을 초래할 투등매국노, 제2의 을사오적무리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너무도 모르고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동족을 해치려고 별의별 비굴한 간첩을 해도 재침야욕에 들떠있는 일본이 삼키려고 허바닥을 날름거리리는것은 눈앞에서 어른거리리는 허물한 남조선이다.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다가는 그 간특한 섬나라에 오호려 제가 잡혀먹히우는 비참한 꼴이 되기십상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패당이 《신적폐청산》놀음을 주도하고있다.

두이고 《정부》출신 인사들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검찰수사를 확대하고있는것이 대표적실례이다.

지금 남조선검찰과 경찰은 이전 《정권》시기의 《청와대인사개입의혹》, 《청와대신사개입의혹》,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직권남용의혹》 등을 구실로 이전 집권자의 측근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달려붙고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각 행정부, 처들에 이미 작성된 문서들을 파기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다가 하면 대장동계발특혜사건을 다시 파헤치면서 수사범위를 야당세력에게로 확대하고있다고 한다.

한편 윤석열패당은 검찰과 경찰을 완전한 장악하여 야당탄압과 독재통치의 도구로 삼으려 하고있다.

그야말로 속이 뻘치 들어다보이는 치졸하고 너절한 북수전, 앙갚음이라 해야 할것이다.

윤석열패당이 《신적폐청산》을 들고나온것이 과연 부정부패척결이나 적폐청산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다. 결국 아니다.

윤석열패당이 각종 부정부패의혹들을 안고있는 범죄적

파자이고 그의 처가족속들이 안고있는 부패의혹만도 수두룩하다. 부패전파자가 그 누구를 《청산》한다고 갈을 뽐아들었으니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이고 그의적인 정치보복이라는것이 한눈에 알리는데는 어렵지 않다.

《신적폐》라고 들고나오는 것도 따지고보면 황당하기 이를데없는것이다.

패당의 《신적폐청산》놀음은 저들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도입》을 요구하는 민심의 눈을 돌리기 위해, 이전 《정권》시기 두들겨맞았던 보수세력의 앙갚음을 하기 위해 벌이는 망동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한편 경제위기에 대한 한심한 대응 등으로 붙어다니는 《정치포대기》라는 비난

패당의 《신적폐청산》놀음은 저들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도입》을 요구하는 민심의 눈을 돌리기 위해, 이전 《정권》시기 두들겨맞았던 보수세력의 앙갚음을 하기 위해 벌이는 망동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한편 경제위기에 대한 한심한 대응 등으로 붙어다니는 《정치포대기》라는 비난

도둑 조연을 주는 등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있는것은 윤석열패당의 치졸하고 너절한 정치적복수전에 가만히 앉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자기도 박근혜나 리명박선세가 될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사실 윤석열에게는 이전 집권자는 인종중의 인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 집권자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그처럼 무능하고 부패로 얼룩진 자기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왔을 쯤도 되지 못하였을 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도 기존 계 주인의 발꿈치를 문다고 정치적이심을 실천하기 위해 이전 집권자를 배반하고 대립각을 세워 결국 《대통령》감투를 가로챈 그가 이제 와서는 또 《신적폐청산》이니 하며 정치보복의 필리핀을 발세부리 풍기고 있는것이다.

가는 방망이 오든 흥동래라고 앞날은 생각지 않고 치졸한 정치보복놀음에 혈안이 되어 날름하는 윤석열의 꼴을 두고 남조선의 여론들은 그것이 곧 부패망이 되어 그한테 돌아갈것이라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대통령실》이 틀어쥔 통산에 구속수배된 리명박도 그리 먼 앞날의 일이 아니다.

주광민

《구 걸 질》



《신적폐청산》이나, 정치보복이나

《신적폐청산》이나, 정치보복이나

《청와대인사개입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사건은 전 《대통령》비서실 실장과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청와대근무시기 박근혜정권시기에 임명된 수백명의 공공기관 핵심인물들에게 자진사퇴를 강요하였다는 《공무원징계사회의혹》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소속 특별감찰반 수사관에게 당시 박근혜정권을 통해 이 의혹사건을 《폭로》하자 《철저한 조사》를 떠들었다가 당사자가 비밀유설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제물을 주지않았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윤석열

《신적폐청산》이나, 정치보복이나

《청와대인사개입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 사건은 전 《대통령》비서실 실장과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청와대근무시기 박근혜정권시기에 임명된 수백명의 공공기관 핵심인물들에게 자진사퇴를 강요하였다는 《공무원징계사회의혹》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소속 특별감찰반 수사관에게 당시 박근혜정권을 통해 이 의혹사건을 《폭로》하자 《철저한 조사》를 떠들었다가 당사자가 비밀유설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제물을 주지않았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윤석열

《신적폐청산》이나, 정치보복이나